

국 어

1. <보기>의 ㄱ~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우리 사무실은 도심에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ㄴ. 천세나 만세를 누리소서!
 ㄷ. 그 일은 어제 끝냈어야 했다.
 ㄹ. 넷에 넷을 더하면 여덟이다.
 ㅁ. 한창 크는 분야라서 지원자가 많다.

- ① ㄱ의 ‘비교적’은 관형사이다.
 ② ㄴ의 ‘만세’는 명사이다.
 ③ ㄷ의 ‘어제’는 부사이다.
 ④ ㄹ의 ‘여덟’은 수사이다.
 ⑤ ㅁ의 ‘크는’은 동사이다.

2. 밑줄 친 말 중 문법적 기능이 다른 것은?

- ① 그것참, 신기하군그래.
 ② 그를 만나야만 모든 원인을 밝힐 수 있다.
 ③ 그것이 금덩이라도 나는 안 가진다.
 ④ 얼마 되겠느냐마는 살림에 보태어 쓰도록 해.
 ⑤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출목을 무사히 넘겼다.
 → 일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② 그 사람들도 선걸음으로 그리 내달았다.
 → 이미 내디뎠고 있는 그대로의 걸음
 ③ 겨울 동안 갈무리를 했던 산나물을 팔았다.
 →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④ 그는 인물보다 맨드리가 쓰레기꾼 축에 섞이기는 아까웠다.
 → 옷을 입고 매만진 맵시
 ⑤ 그녀는 잔입으로 출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 음식을 조금만 먹음

4.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그 회사는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
 ② 내 생각은 네가 잘못을 인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③ 지도자는 자유 수호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무 지표 현황과 개선 계획을 수립,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이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무엇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5. 다음 글의 논지와 가까운 것은?

괴테는 인간의 목표가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 보편성에 이르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자연이라는 근원에서 나온 개체에 대해서는 자연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개체와 근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그리하여 나폴레옹이 그의 조국을 점령하였을 때에 그는 피히테만큼 열성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도 자기 민족의 자유를 원했고 조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시했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인간성이나 인류와 같은 관념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괴테는 집단의식보다는 개인의 존엄성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에 속한 채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떠오른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원칙만을 내세워 집단을 개인의 우위에 두면 ‘진정한 인간성’이 개발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 조직 사회에 종속됨으로써 정신적 독립성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괴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그는 현대의 공기를 마셔 보지 않았지만 대단히 현대적인 시각에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해야 한다. 물질적 편리함을 위해 정신적 고귀함을 간단히 양보해 버리고,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순수성을 쉽게 배제해 버리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혼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순수하고 고결한 인간성을 부르짖는 괴테의 외침은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는 오늘날의 심각한 병폐를 함께 치유하자는 세계사적 선서의 의미를 지닌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진정한 인간성’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개인과 집단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이며,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이다.
 ② 개인이 집단의 목적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민주 시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비판이 없는 집단은 자기 발전이 없다.
 ③ 개인의 존엄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도 자기 목소리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집단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진정한 인간성은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개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주장하여 운영에 차질을 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⑤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꺾는 것도 잘못이지만, 개인의 의지가 다수의 논리를 무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6. <보기>의 관점에서 ㉠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제1 언어 습득 연구에 대한 양극단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 행동주의자적 입장은 어린이들이 백지 상태, 즉 세상이나 언어에 대해 아무런 전제된 개념을 갖지 않은 깨끗한 서판을 갖고 세상에 나오며, 따라서 어린이들은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다양하게 강화된 예정표에 따라 서서히 조건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반대쪽 극단에 있는 구성주의의 입장은 어린이들이 매우 구체적인 내재적 지식과 경향, 생물학적 일정표를 갖고 세상에 나온다는 인지주의적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주로 상호 작용과 담화를 통해 언어 기능을 배운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연속선상의 양극단을 나타내며, 그 사이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보 기>

생득론자는 언어 습득이 생득적으로 결정되며, 우리는 주변의 언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언어의 내재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유전적 능력을 타고난다고 주장한다.

- ①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에서 실제적 언어 사용의 양상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 ② 아동의 언어 습득을 관장하는 유전자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는 행동주의는 불완전한 가설일 뿐이다.
- ③ 아동은 단순히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 ④ 아동의 언어 습득은 특정 언어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핵심 과정인데, 행동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아동의 언어 습득이 외적 자극인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행동주의 모델은 배우거나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을 만들어내는 어린이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7. ‘도산 노인’의 생각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도산십이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여 죽히 말할 것이 없으니 「한림별곡」과 같은 것도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고 방탕하며 겸하여 점잖지 못하고 장난기가 있어 더욱 군자가 숭상해야 할 바가 아니다. 다만 근세에 이별의 「육가」라는 것이 있어 세상에 성대하게 전해지는데, 저것보다 낮기는 하나 또한 세상을 회롱하는 불공한 뜻만 있으며, 온유돈후의 실질이 적은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노인은 평소 음악을 이해하지는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이 듣기 싫은 것을 알아, 한가히 살면서 병을 돌보는 여가에 무릇 성정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로 부를 수는 없다. 만약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의 말로 엮어야 되니, 대개 우리나라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대략 이별의 노래를 본떠 도산육곡이란 것을 지은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언지(言志)이고 다른 하나는 언학(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여 안식에 기대어 이를 듣고자 했다.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게 한다면, 비루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느낌이 일어나 두루 통하게 될 것이니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자취가 자못 어그러졌으니, 이 같은 한가한 일이 혹시나 시끄러운 일을 야기하게 될지 모르겠고, 또 곡조에 없었을 때 음절이 맞을지도 알 수 없어 우선 한 부를 베껴 상자 속에 담아 두고, 때때로 꺼내 완상하여 스스로를 반성하며, 또 훗날에 보는 자가 이를 버리거나 취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 이황, 「도산십이곡발」 -

- ① 우리말 노래가 대체로 품격이 떨어진다고 보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 ② 우리나라에서 한시를 노래로 부르는 전통을 되살리려고 한다.
- ③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에게도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④ 자신이 노래를 지은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 ⑤ 자신이 지은 노래가 후세에 전해져서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을 기대한다.

8.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는 두 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하셨던 아버지는 두꺼비부터 씻겨 주고 늦은 식사를 했다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다 한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살짝 만져 보았다 그런데 녀석이 독을 뱉어내는 통에 내 양 눈이 한동안 충혈되어야 했다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다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이 새기 전에 막일판으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집을 지으셨다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내 아버지 양 손엔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 박성우, 「두꺼비」 -

- ① 화자가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의 고생스러운 삶에서 서러움과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② 이 시는 아이의 시선과 동요의 가사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희생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 ③ 이 시는 첫 줄과 마지막 줄에 제시된 아버지와 두꺼비의 호응 관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이 시에서 ‘두꺼비’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들을 의미한다.
- ⑤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는 표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신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비물질적 실체인 영혼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영혼이 때때로 유령이나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 유령이 어떻게 유형의 물질과 상호 작용하는가? 무형의 비실체가 어떻게 번쩍이고 쿵 찌르고 뿜 소리를 내는 외부 세계에 반응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그뿐 아니라 정신은 곧 뇌의 활동임을 보여 주는 엄청난 증거들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오늘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물질적이라 생각했던 영혼도 칼로 해부되고, 화학물질로 변질되고, 전기로 나타나거나 사라지고, 강한 타격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해 소멸되곤 한다. 현미경으로 보면 뇌는 풍부한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대단히 복잡한 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정신을 어떤 특별한 형태의 물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피노키오는 목수 제페토가 발견한, 말하고 웃고 움직이는 마법의 나무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그러나 애석한 일이지만 그런 신비의 물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뇌 조직이 그 신비의 물질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윈은 뇌가 정신을 ‘분비한다’고 적었고, 최근에 철학자 존 설은 유방의 세포 조직이 젖을 만들고 식물의 세포 조직이 당분을 만드는 것처럼, 뇌 조직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정신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뇌종양 조직이나 접시 안의 배양 조직은 물론이고 모든 동물의 뇌 조직에도 똑같은 종류의 세포막, 기공, 화학물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 모든 신경세포 조직이 동일한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 모두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보이진 않는다. 물론 인간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어떤 측면이 우리의 지능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물리적 특성들로는 충분하지 않다. 벽돌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음악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한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신경세포 조직의 ‘패턴’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 ① 다윈과 존 설은 뇌 조직이 인간 정신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 ②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물리적 특성은 인간 지능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③ 지능에 대한 전통적 설명 방식은 내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④ 뇌의 물리적 특성보다 신경세포 조직의 ‘패턴’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 ⑤ 뇌와 정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있다.

10. <보기>는 국어 단모음 체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ㅣ	ㅡ	ㅏ		ㅣ	ㅡ	ㅏ		ㅣ	ㄱ	ㅡ	ㅏ
	ㅑ	ㅓ		ㅑ	ㅓ	ㅓ		ㅑ	ㅓ	ㅓ	ㅓ
	ㅕ	ㅗ	⇒	ㅕ	ㅗ		⇒	ㅕ	ㅗ		
	ㅛ	ㅜ		ㅛ	ㅜ			ㅛ	ㅜ		
[15세기]				[19세기 초]				[현재]			

- ① 모음들이 연쇄적으로 조음 위치의 변화를 겪는 현상이 발견된다.
- ② 국어 역사에서 후설 저모음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 ③ 단모음의 개수는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④ 모음 중에서 음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있다.
- ⑤ 일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발견된다.

11. (가)~(마)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 (가) 작센의 아우구스투스 2세는 독일 마이센 성의 연금술사인 요한 프리드리히 뢰트거를 가두고 황금을 만들라 명한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하자 아우구스투스는 화학 반응으로 금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과 맞먹는 대체품으로 백자를 만들라 명령한다. 뢰트거는 백자를 만들기 위해 대리석이나 뿔가루를 사용했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그는 1708년, 3년 만에 마이센에서 고령토 광산을 발견했고 장식 성분을 추가해 백자의 성분 문제를 해결한다.
- (나) 18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은 상류층에서 살롱 문화가 급속하게 번진다. 살롱에서 담론을 펼칠 때 아프리카 커피와 중국 차를 마시는 게 최고의 호사였으며, 백자는 거기에 품격을 더했다. 하지만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인들만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유럽은 비싼 가격을 중국에 지불하면서 백자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 (다) 또 발터 폰 치른하우스의 도움으로 렌즈와 거울을 이용한 1400도 가마가 가능해졌다. 하늘에서의 고온과 땅에서의 고령토, 그러니까 천지의 조화를 통해 백자가 만들어졌고, 뢰트거는 이 결과를 기록에 남겼다. 이후 마이센의 백자 기술이 오스트리아 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덴마크 코펜하겐, 이탈리아 피렌체, 영국 런던 등으로 유출되면서 백자의 유럽 생산 시대가 열렸다.
- (라) 이탈리아의 메디치 포슬린을 비롯하여 유럽 각지에서 백자를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흰색을 내는 온갖 재료를 사용했지만 유리를 섞어 만드는 수준이었다. 실패의 원인은 백자의 주원료인 고령토를 알지 못했고, 1100도 이상의 가마를 만들지 못했던 데 있다. 중국 백자의 제조 비밀은 유럽의 과학기술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다.
- (마) 17세기 유럽 전역에 백자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중국의 백자가 유럽에 들어오자 ‘하얀 금’이라 불리며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은 백자를 비롯한 중국적 취향을 ‘시누아즈리’라면서 바로크나 로코코 양식과 결합시킨다.

- ① (가)-(다)-(나)-(라)-(마)
- ② (가)-(다)-(마)-(나)-(라)
- ③ (가)-(마)-(라)-(나)-(다)
- ④ (마)-(가)-(다)-(라)-(나)
- ⑤ (마)-(나)-(라)-(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2. ~ 문 13.]

- (가) ‘테라포밍’은 지구가 아닌 다른 외계의 천체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까지 최적의 후보로 꼽히는 행성은 바로 화성이다. 화성은 육안으로도 붉은 빛이 선명하기에 ‘火(불 화)’ 자를 써서 화성(火星)이라고 부르며, 서양에서는 정열적인 전쟁의 신이기도 한 ‘마르스’와 함께 ‘레드 플래닛’, 즉 ‘붉은 행성’으로도 일컬어진다. 화성이 이처럼 붉은 이유는 표면의 토양에 철과 산소의 화합물인 산화철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 녹슨 쇠가 불그스름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녹슨 행성인 화성을 왜 ‘테라포밍’ 1순위로 선정했을까? 또 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푸른 별로 바꿀 수 있을까?
- (나) 영화 「레드 플래닛」을 보면 이런 ‘테라포밍’의 계획이 잘 나타나 있다. 21세기 초, 자원 고갈과 생태계 오염 등으로 지구의 환경이 점점 악화되자, 화성을 새로운 인류의 터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끼 종자를 가득 담은 무인 로켓이 화성으로 발사된다. 이끼가 번식해 화성 표면을 덮으면 그들이 배출하는 산소가 모여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대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0여 년 후, 마침내 화성에 도착한 선발대는 희박하기는 하지만 화성의 공기가 사람이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음을 알게 된다.
- (다) 그렇다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화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가능할까?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지만 가능성은 있다. 화성의 극지방에는 ‘극관’이라고 부르는 드라이아이스로 추정되는 하얀 막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녹여 화성에 공기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극관에 검은 물질을 덮어 햇빛을 잘 흡수하게 만든 후 온도가 상승하면 극관이 자연스럽게 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 검은 물질을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소량을 뿌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관 전체를 덮게 될 것이다.
- (라)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검은 물질이 바로 「레드 플래닛」에 나오는 이끼이다. 유전 공학에 의해 화성처럼 혹독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지의류 같은 이끼의 변종을 만들어 내어 화성의 극관 지역에 투하한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으로 번식할 경우 서서히 태양광선 흡수량이 많아지고 극관은 점점 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택하더라도 인간이 직접 호흡하며 돌아다니게 될 때까지는 최소 몇 백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 (마)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지만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을 불굴의 의지로 해결해 왔다. 화성 탐사선이 발사되고 반세기가 안 된 오늘날 인류는 화성을 지구 환경으로 만들 꿈을 꾸고 있다. 최소 몇 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테라포밍’도 언젠가는 인류의 도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아주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은 화성을 볼 때, 붉게 빛나는 별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화성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화성을 ‘녹성(綠星)’ 또는 ‘초록별’이라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지 않을까?

1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예를 통해 화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다): 화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귀납을 통해 화제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 ⑤ (마):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13. ‘테라포밍’ 계획의 핵심이 되는 최종적인 작업은?

- ① 화성의 극관을 녹이는 일
- ② 인류가 화성에 이주하는 일
- ③ 화성에 대기층을 만드는 일
- ④ 화성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일
- ⑤ 극관을 검은 물질로 덮는 일

14. ㉠~㉣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 중 <보기>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표기 일람표

제3장 표기 세칙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1절 표기 원칙

제2항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제4항 ㉤고유 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보 기>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수도인 키예프는 ‘키이우’로, 제2의 도시 하리코프는 ‘하르키우’로, 서부의 리비프는 ‘르비우’로 바꿔 부릅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가 울성쉴다.
- ② 자네가 이야기를 좀 하게나그려.
- ③ 집을 떠나온 지 어언 3년이 지났다.
- ④ 북도에서 친구가 먼저 나에게 알은척했다.
- ⑤ 그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 차 외국에 나갔다.

16.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옳은 것은?

- ① 벼가 익으니 들판이 누래.
- ② 그는 시장에 드르지 않고 집에 왔다.
- ③ 아이들은 기단 작대기 끝에 형뺨을 매달았다.
- ④ 추위에 손이 고와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다.
- ⑤ 그가 내 옆구리를 넙다 질르는 바람에 눈을 떴다.

1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한자 성어로 바꾸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릇 지도자는 항상 귀를 열어 두어야 한다. 만약 정치를 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도 주위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아집의 정치를 행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아집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숨길 수 없고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주변의 충고를 듣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순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강행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다. 대개 이런 지도자 주변에는 충직한 사람이 별로 없고, ㉣지도자의 눈을 가린 채 지도자에게 제멋대로 조작되거나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지도자의 힘을 빌려 권세를 휘두르려고만 하는 무리만이 판을 칠 뿐이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나라는 ㉤혼란과 무질서와 불의만이 판을 치는 혼탁한 상태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 ① ㉠: 호질기의(護疾忌醫)
- ② ㉡: 장두노미(藏頭露尾)
- ③ ㉢: 도행역시(倒行逆施)
- ④ ㉣: 지록위마(指鹿爲馬)
- ⑤ ㉤: 파사현정(破邪顯正)

18. 다음 글에서 말하는 ‘그릇’ 도식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존슨의 상상력 이론은 ‘영상 도식(Image Schema)’과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상 도식이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소수의 인식 패턴들이며, 시대와 문화를 넘어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의 기본 패턴들이다. 존슨은 ‘그릇(Container)’, ‘균형(Balance)’, ‘강제(Compulsion)’, ‘연결(Link)’, ‘원-근(Near-Far)’, ‘차단(Blockage)’, ‘중심-주변(Center-Periphery)’, ‘경로(Path)’, ‘부분-전체(Part-Whole)’ 등의 영상 도식을 예로 들고 있다. 우리는 영상 도식들을 물리적 대상은 물론 추상적 대상들에 ‘사상(Mapping)’함으로써 사물을 구체적 대상으로 식별하며, 동시에 추상적 개념들 또한 구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릇’ 도식을 방이나 건물 같은 물리적 대상에 사상함으로써 그것들을 안과 밖이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 ‘그릇’ 도식을 꿈이나 역사 같은 추상적 대상에 사상함으로써 ‘꿈속에서’나 ‘역사 속으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① 사랑받는 사람의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 ② 원수를 기다리는 그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 ③ 전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나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다.
- ④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 ⑤ 지구의 반대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드디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1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이는 거리의 나무 의자에 앉아서도 마 찬가지였다. 처음 얼마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토요일 오후의 인 파가 동생과 동생 친구의 옆으로 흘러넘쳤다. 나무 의자들 앞쪽, 공중전화 부스도 전부 사람들로 메워졌다. 둘의 기분은 아주 우 울했다. 즐거운 일이 없었다. 둘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치 명적인 질병에 걸려 헤어나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날 친구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나는 협박과 유혹을 받고 있다.”

그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얼굴을 들 때는 지나치게 심각해 보였다.

“왜 그래?”

동생이 물었다. 친구는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다.

“박쥐 때문야.”

“박쥐라니?”

“벌써 잊었니?”

동생은 소스라치듯 물었다.

“그는 대학에 있잖아.”

“그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

“어디서?”

“신문을 봐야 알지. 그가 우두머리가 돼 왔어.”

“벌어먹을!”

동생이 소리쳤다.

전화 차례를 기다리던 몇 사람이 둘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이 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다.

“사실, 놀랄 일은 아닌데.”

동생도 친구의 얼굴을 닮아 가며 말했다.

“그다운 결정 아냐?”

“물론 그래.”

“그런데 네가 그에게서 받는 협박은 어떤 거야?”

“나를 자기와 가까운 자리에 앉히려는 거야.”

침울한 목소리였다. 동생은 할 말을 잃었다. 친구가 이야기했다.

“그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었어. 과장이 오히려 놀 라워하며 급히 가보라고 해 나는 그의 방으로 갔었지. 다들 부러 워하는 눈치였어. 그런데도 나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는 그의 방 바로 그 앞에서 마음 문은 더욱 굳게 닫히고, 하늘처럼 높아야 할 제일 우두머리는 위선적인 인간, 기회주의자, 그리고 우리를 짓밟은 꼬나풀이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 그는 웃고 있 었어. 나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말야. ‘지난 얘기지만 나는 대학 에 있을 때부터 자네가 훌륭한 젊은이라는 점을 인정했었지. 물 론 자네의 약점이 어떤 건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이야기는 그만하구, 다음 주부터 이 옆방으로 와 일해 주게.’ 알겠니? 그러 면 자기가 나를 끌어주겠다는 거야.”

이때의 친구는 아주 짧은 동안 동생이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다.

“간단히 말해 한편이 되자는 거야.”

하고 동생의 친구는 말했다.

“그는 너의 이용 가치를 생각한 거다.”

이번에는 동생이 말했다.

“학교에서 우리를 괴롭힌 인간이 밖에서 달라져야 될 까닭은 없잖아?”

“없지.”

“그는 너에게서 뭘 원하는 걸까?”

“그야 충성이지. 자기가 못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를 테구.”

- 조세희, 「육교 위에서」에서 -

- 동생과 동생의 친구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동생과 동생의 친구는 대학에 다닐 때부터 ‘박쥐’로 불리는 ‘그’를 알고 있었다.
- ‘박쥐’로 불리는 ‘그’는 대학에 있을 때 동생과 동생의 친구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다.
- 동생은 자신의 친구가 ‘박쥐’로 불리는 ‘그’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 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 동생은 ‘박쥐’로 불리는 ‘그’가 동생의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우두 머리로 부임해 온 것을 신문에서 보았다.

20. 어문 규범에 맞는 문장은?

- 다음 주에 비요.
- 아이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술을 마신 다음날 그는 북어국을 먹었다.
- 내가 그 내용을 요약토록 해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21. ~ 문 22.]

그것은 알렉산드르 2세가 통치하던 최근의, 우리 시대의 일이었다. 그 시대는 문명과 진보의 시대이고, ㉠제반 문제점들의 시대, 그리고 러시아의 ㉡부흥 등등의 시대였다. 또한 불패의 러시아 군대가 적군에게 내어준 세바스토폴에서 돌아오고, 전 러시아가 흑해 함대의 괴멸에 축전을 거행하고, 하얀 돌벽의 모스크바가 이 기쁜 사건을 맞이하여 이 함대 승무원들의 생존자들을 영접하고 경축하며, 그들에게 러시아의 좋은 보드카 술잔을 대령하며, 러시아의 훌륭한 풍습에 따라 빵과 소금을 대접하며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던 때였다. 또한 그때는 ㉢형안의 신인 정치가와 같은 러시아가 소피아 사원에서 기도를 올리겠다는 꿈이 깨어짐에 슬퍼하고, 전쟁 중에 사망하여 조국의 가슴을 가장 미어지도록 아프게 한 위대한 두 인물(한 사람은 위에 언급된 사원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탔던 사람으로 발라히야 들판에서 전사했는데, 그 별판에 두 기병중대를 남겼다. 다른 한 사람은 부상자들에게 차와 타인의 돈과 시트를 나누어주었지만 아무 것도 훔친 것은 없었던 훌륭한 사람이었다.)의 상실을 슬퍼하고 있을 때였다. 또한 그것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를테면 사령관들, 행정관들, 경제학자들, 작가들, 웅변가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은 없지만 그래도 위대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에 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을 때였다. 또 모든 범죄자들을 ㉣응징하기 시작한 사회 여론이 모스크바의 배우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축배사로 올려 퍼질 만큼 확고히 된 때이다. 페테르부르크에서 구성된 ㉤준엄한 위원회가 악덕 위원들을 잡아서 그들의 죄상을 폭로하고 처벌하기 위해 남쪽으로 달려가던 때이고, 모든 도시에서 세바스토폴의 영웅들에게 연설을 곁들여 오찬을 대접하고 팔과 다리를 잃은 그들을 다리 위나 거리에서 마주치면 코페이가 은화를 주곤 하던 때였다.

- 톨스토이, 「데카브리스트들」에서 -

21.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두 개의 특수한 대상에서 어떤 징표가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적 상황을 서술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어떤 일이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 변화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⑤ 저자의 판단이 참임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2. 밑줄 친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
- ② ㉡: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 ③ ㉢: 빛나는 눈
- ④ ㉣: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함
- ⑤ ㉤: 태도나 상황 따위가 튼튼하고 굳음

23. 다음 글을 토대로 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예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행에서 상생이란 기르고, 북돋우고, 촉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상극이란 억압하고, 구속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오행 사이에는 모두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존재한다. 상생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물의 발전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상극 관계가 없으면 사물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중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없다. 상생 관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고 상극 관계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다.

「서유기」의 등장인물은 오행의 생극 관계로 형상화되어 있다. 작품에서 삼장은 오행 가운데 수에 속한다. 삼장과 상생 관계에 있는 인물은 목인 저팔계이고 상극 관계에 있는 인물은 화인 손오공이다. 삼장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저팔계를 편애하는 것은 그들이 상생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손오공에게 각박한 것은 상극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장과 손오공 사이에는 상극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관계도 존재한다. 손오공은 화인 동시에 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이 수를 낚는 상생 관계이므로 손오공과 삼장 사이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손오공은 서행 길을 가는 동안 삼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요괴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삼장이 미망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그를 정신적으로 인도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오정은 오행에서 토에 속한다. 사오정은 참을성 많고 침착하며 사려 깊은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① 손오공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생 관계가 존재한다.
- ② 손오공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
- ③ 손오공과 사오정 사이에는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
- ④ 삼장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생 관계가 존재한다.
- ⑤ 사오정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

2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데이터 권력은 역사의 객관적이고 원본에 입각한 사실 기록의 방식과 해석에도 심각한 변화를 일으킨다. 디지털 기록은 알고리즘 분석을 위해 축적되는 자료에 불과하고, 개별의 구체적 가치와 질감을 거세한 무색무취의 건조한 데이터가 된다. 이용자들의 정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데이터 조각으로 저장되지만, 누군가에 의해 알고리즘 명령으로 호출되기 전까지 그 어떤 사건사적·사회사적 의미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어떤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남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왜 특정의 데이터가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등에 관한 역사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역사기록학적 물음들은, 오늘날 인간 활동으로 뿔어져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에 의존한 많은 닷컴 기업들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 데이터 취급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데이터 기업 자본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인간의 움직임과 활동, 감정의 흐름 모두를 실시간으로 저장해 필요에 의해 잘 짜인 알고리즘으로 원하는 정보 패턴이나 관계를 찾는 데 골몰한다. 진본성이나 공공성을 담지한 공식 기록을 선별해 남기려는 역사학적 관심사는, 이 새로운 무차별적인 기억과 감정적 흐름의 공장을 돌리는 데이터 권력 질서와 자주 경합하거나 때론 데이터 권력에 의해 억압당한다.

새로운 데이터 권력의 질서 속에서는 개별적 기록이 지닌 가치와 진실 등 그 사회사적 사건의 특수한 흔적들이 거의 완전히 지워진다. 지배적 알고리즘의 산식에는 개인적 차이, 감수성, 질감들이 무시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부유하는 집단 욕망들의 경향과 패턴을 포착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 ① 공적이고 질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려는 역사기록학적 시도는 데이터 권력에 의해 방해받는다.
- ②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이터 권력은 개인들의 섬세한 차이를 기록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 ③ 데이터 가공을 통해 생존하는 데이터 기업은 알고리즘 산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한다.
- ④ 데이터 권력의 지배적 알고리즘을 수용함으로써 역사학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 ⑤ 역사학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집단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시도한다.

2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한나라 무제는 춘추학자 동중서의 헌책을 받아들여, 도가나 법가의 사상을 멀리하고 그때까지 제자백가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유가의 사상을 한나라의 정통 사상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백가 중에서 유가가 정통 사상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 당시 유가 외의 유력한 사상으로는 도가와 법가가 있었다. 법가는 법률에 의한 강제 지배를 국가 통치의 최상 형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은 전국시대 한비에 의해 이론화되고, 이사에 의해 시황제 치하 진나라의 통치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법에 의한 지배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국가 권력, 구체적으로는 강대한 군사력이나 용의주도하게 구축된 경찰 조직을 필요로 한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그것을 실현하여 중국 최초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었으나, 진나라는 곧 붕괴해 버리고 말았다. 법에 의한 지배를 유지하는 일이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한나라 초기의 위정자나 사상가는 이러한 역사를 반성하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가의는 「과진론」을 통해 진나라가 실행한 법치주의의 가혹함을 혹독하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항우와 치열한 천하 쟁탈의 싸움을 벌인 끝에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은 비용이 많이 드는 법가 사상을 채용할 만한 국가적 여유를 갖고 있지 못했다.

한편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도가는 전란으로 피폐해진 한나라 초기의 국가 정세 및 백성들의 사정에 가장 적합한 사상이었다. 사실 문제 시대에 도가 사상이 일세를 풍미했던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결국 외부적 강제를 부정하는 도가 사상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었다. 한나라가 국력을 회복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도가 사상은 결국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효제충신의 가족 도덕을 근간으로 하는 유가 사상이다. 당시 ‘리(里)’라고 불린 촌락 공동체는 생활 관습이나 가치관을 구현하는 ‘부로(父老)’와 일반 촌락민인 ‘자제(子弟)’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동체 내부의 인간관계는 흡사 가족 생활이 연장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촌락 공동체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유교적인 윤리나 규범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만약 국가가 유교적 권위를 승인하고 촌락 공동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윤리나 규범을 국가 차원에까지 횡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절대주의적인 황제 권력을 확립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었다. 부로를 존경하는 향리의 자제는 동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국가의 좋은 백성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무제는 가족 도덕이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그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점에 매력을 느껴 유교를 국교로 정했던 것이다.

- ① 도가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약점이 있었다.
- ② 한나라 초기에는 법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활발했다.
- ③ 한나라 가의에 의해 도가 사상이 사상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 ④ 유교가 국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한나라의 촌락 공동체는 유교의 도덕규범을 준수하고 있었다.
- ⑤ 도가의 무정부주의적 성격은 한나라의 국가 정비를 정면에서 가로막았다.